

2020 vol.1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웹소식지

GyeongSangNam-Do
Environment
Training Institute

WEBZINE



ECO TOGETHER



으름덩굴 *Akebia quinata*
미나리아재비목 으름덩굴과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GyeongSangNam-Do
Environment
Training Institute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장 정순건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환경적인 결핍이 발생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 종이컵, 플라스틱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은 직접적인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에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은 도민의 환경의식 함양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경남의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경남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에코투게더를 시작으로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의 다양한 이야기를 도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남 환경교육단체들의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웹진이지만 많은 관심과 더불어 애정 어린 질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웹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장

정 순 건



ECO TOGETHER

05

ECO NEWS 환경소식 및 정책동향

우리의 환경교육, 어디에서 있는가?

지찬혁 경상남도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기

정대수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11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이야기

김해 자연과사람들

14

경남환경교육의 이모저모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16

환경교육 캘린더

5월 / 6월

우리의 환경교육, 어디에 서 있는가?

지찬혁 경상남도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다. 인간이 1만 년 전 농업혁명으로 무리를 지은 이후 인류사에서 사라지지 않은 몇 가지가 전염병과 전쟁일 것이다.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치료제와 백신을 찾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전염이 강한 바이러스의 변종은 끊임없이 인류가 이룩한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을 놓고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야생동물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환경파괴, 그리고 지구촌 경제로 빈번해진 국제적 이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라고 보고 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에게 전염병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환경의 중요성을 어떻게 일상의 문제로 이해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전염병의 문제도 결국 '환경'의 복잡한 여러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장단기적인 관리 등 해법을 놓고 잘못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교육’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환경교육의
혜택은 어느 정도이며, 누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지난
해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는 경남환경교육원의 의뢰로 “2019년
경상남도 환경교육 현황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9년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에 가입한 기관·단체 39개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에 최소 22만 명 이상이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었으며, 이들 단체 중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73.9%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환경교육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 중 비영리민간단체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39% 정도이고, 대부분 교육시설을 임대하거나 공동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남지역에서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주제는 육상생태계(37%), 생활환경(22%), 기후변화와 에너지(20%), 해양생태계(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체험형 혹은 체험과 강의가 복합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2015년 제2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서 도민설문조사 결과 관심 있는 환경교육 분야의 답변 중 자연생태(35%), 기후변화와 에너지(37%), 생활환경(26%)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서 실제 환경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주제는 생태계 관련 활동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사시기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환경교육이 집중해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70% 이상은 유·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해 현재보다 향후 환경교육이 유·청소년층에 조금 더 집중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었다. 환경교육 중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프로그램은 2016년 조사 때 32개에서 17개가 신규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회원단체에서 인증 받은 것이 9개였다.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환경부 인증프로그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로는 환경교구 활용현황을 들 수 있는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교구와 교재는 총 1,045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경남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주제별로 보면 육상생태계(59%), 해양(17%), 생활환경(7%), 기후변화와 에너지(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텃밭교육 등과 일상에서 진행되는 환경교구 활용은 차이가 있어 정책의 변화에 수반되어야 할 교보재 개발에 별도의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경남지역 환경교육 강사들의 인구통계학적 조사·분석 결과에서는 강사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성비 및 고령화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강사 대부분 전공이 환경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많지 않아 대부분 자연환경해설사 등 별도의 법정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경교육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경남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장기적으로 쟁겨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경남지역의 환경교육네트워크 및 주요 환경교육시설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교보재, 교육정보와 콘텐츠 등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 분야의 교보재를 기획·개발하는 과제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갖추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둘째, 환경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환경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교사, 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콘텐츠 확보가 시급한 요구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남의 환경교육이 광역환경교육센터(경남환경교육원)와 환경교육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고, 도교육청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시설 등이 도내 여러 곳에 있지만, 환경교육이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 시·군에 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올해는 제3차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지난 10년이 경남지역에서 환경교육이 기본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환경교육의 내실화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 환경교육네트워크의 회원단체들이 환경교육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정도에서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경남의 모든 시·군에 최소 한 곳 이상의 환경교육시설과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글에서 인용한 몇 가지 시사점과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경상남도 환경교육 현황 조사연구 보고서(경남환경교육원, 201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기

정대수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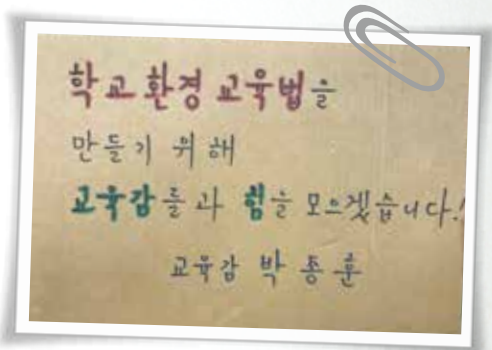


스웨덴 소녀 튜베리와 우리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속 깊이 끓어오르는 미안함에 박종훈 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자고 실무진에게 제안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라며 “어른들이 책임져야할 문제를 우리청소년들이 앞장서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하며 실무진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감의 특별 지시가 있었지만 기후위기는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고,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라 국가 정상들이 해야 할 수 있는데 학교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5개월의 긴 장고(?) 끝에 실무진은 2가지 준비를 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비상선언을 준비했다. 먼저 밖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와 환경부에 환경교육법 개정을 건의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긴급 제안하고 안으로는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기후위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



지난 2월 17일 100명의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 교사단(이하 실천교사단)”은 정부·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교사가 기후위기를 교육 핵심으로 삼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를 지키는 경남학교환경교육 비상 선언’을 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가 멸종될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기성세대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남의 교사 100명이 학교와 교실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위해 나섰다.

이날 실천교사단은 ‘따뜻한 관심과 작은 실천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남학교환경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경남교육청은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에 ‘환경이 곧 인권’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관심과 작은 실천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남학교환경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마음을 실천교사단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환경감수성, 환경공동체의식, 성찰·통찰능력, 창의적문제해결력, 의사소통및갈등해결능력, 환경정보활용능력’ 6개의 핵심역량으로 100대 과제에 담았다.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



1단계 자연 생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100대 과제는 10개의 큰 과제, 3개의 실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실천 단계 중 1단계는 자연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단계로 지구 속에 살고있는 동·식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외 2개의 큰 과제가 있다,



2단계 학교,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

2단계는 학교,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 단계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외 3개의 큰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는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 단계로 우리 주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알아보십시오 외 2개의 큰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3단계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

실천교사단은 1개의 큰 과제 속에 1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과제별로 핵심역량을 제시하여 나의 주변에 대한 관심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 실천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경남교육청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일을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실천교사단과 함께 가정·학교·사회에서 실천하면서 고민할 것이다.

김해 자연과 사람들

자연과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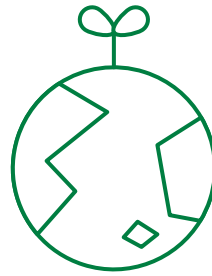
산업이 발달되고 현대화되면서 점차 자연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중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된 연령층은 바로 어린이들이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체험해야 하는 것, 공부해야 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자연결핍장애'는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생태 교구 개발 및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자연과사람들(대표 박승국)을 찾았다.



자연 그 자체가 좋았다.



자연과사람들 설립 계기

‘자연 체험, 숲 체험, 생태 체험’ 지금은 익숙한 용어이지만 처음 이일을 시작한 2000년 도만 하더라도 ‘자연에서 체험하고 논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다. “자연에서 논는데 무슨 비용을 내느냐”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직원들에게 4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하는 시기도 있었다. 광송국 대표와 직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여 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차근차근 바꾸어 나갔다.

“아이들이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목표로 시작했지만 시행착오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알리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 오감을 통한 체험이 더 효과적이었지만 초기에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광송국 대표는 즐거움이 있는 체험에 철학적, 인문학적 가치관을 심으며 창의적인 사고력에 이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후 아이들과 실질적인 체험이 실시되면서 입소문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부산-경남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자연생태체험학교가 시작되면서 점차 체계화되며 회원수도 점차 늘어났다.



생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자연과사람들 비전



자연과사람들

위 치 경남 김해시 가야로 202 태평포시즌빌딩 402호, 502호

연 락 처 055)327-0023

홈페이지 www.studynature.co.kr / www.playnature.net

생태교육은 일회성 교육?

주요 업무



‘자연과 사람들’에서는 현재 유아생태교육, 초등 자연생태체험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아 놀자 등 단계별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생태교육들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잘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기획, 교구 개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교육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김해, 부산, 창원, 하동, 등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총 20여기에 걸쳐 약 600여명의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생태교육 지도자들은 앞서 받은 교육을 토대로 적절한 생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교구를 개발한다. 생태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과 다르게 특정한 지역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시기마다 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과 계절의 변화를 잘 담아내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자연과 사람들’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위탁운영하는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을 비롯해 초등, 유아, 생태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 프로그램의 진행에는 교구 개발을 빼놓을 수 없다. 유아부터 초등까지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소모품이 아닌 직접 자연을 느껴보기 위한 도구이자 프로그램의 주제를 심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자연과 사람들’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각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심화된 교육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곽승국 대표는 앞으로의 생태교육은 ‘컨텐츠 사업’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컨텐츠를 통한다면 외부에 알리기 쉽기 때문에 생태교육이 더 활성화 되어 생태교육을 보편화하고, 더 나아가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생태관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역 자연의 특수성을 살린 생태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 지역민들을 교육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컨설팅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곽승국 대표는 “20여년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고 새로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Tel. 055)263-2932 Fax. 070-8233-2831
Mail. coop2013@hanmail.net
Home. suncoop.tistory.com



태양광 자동차 조립

자유학년제

에너지교육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에너지 사용과 기후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미니태양광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환경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중등	교육시간 ● 120분
교육횟수 ● 1회	참여인원 ● 30명
장 소 ● 해당 학교	참 가 비 ● 1인 2만원

경상남도환경교육원

Tel. 055)254-4036 Fax. 055)254-4019
Home. www.gyeongnam.go.kr/gnnature



기후변화 비석치기

자유학년제

청소년환경학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관련 소양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중등	교육시간 ● 120분 ~ 180분
교육횟수 ● 10회	참여인원 ● 200명
장 소 ● 해당 학교	참 가 비 ● 무료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이론 교육

자유학년제

자원재활용 교실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폐자원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활동 등 환경체험활동입니다.

교육대상 ● 중등

교육시간 ● 120분 ~ 180분

교육횟수 ● 10회

참여인원 ● 200명

장 소 ● 해당 학교

참 가 비 ● 무료



학교 주변 숲 생태탐방

자유학년제

꿈을 찾아가는 숲 체험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우리 주변의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알아보고 산림 관련 직업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중등

교육시간 ● 120분 ~ 180분

교육횟수 ● 10회

참여인원 ● 200명

장 소 ● 해당 학교 및 학교 주변 숲

참 가 비 ● 무료



이론 교육



그린잡 보드게임

자유학년제

생태윤리 & 그린잡



인간과 생태의 연관성 등 자연생태 이해를 위한 생태윤리 교육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형성하고 환경관련 녹색직업 그린잡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중등

교육시간 ● 120분 ~ 180분

교육횟수 ● 10회

참여인원 ● 200명

장 소 ● 해당 학교

참 가 비 ● 무료

5월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 마산YWCA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어린이날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주말가족체험
11	12	13	14	15	16	17
<div> <div>■ 업사이클러 전문화교육</div> <div> <div>■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div> <div>■ 마산YWCA 환경보전 서포터즈단 발대식</div> </div> <div>■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간이양성과정</div> <div> <div>■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div> </div> </div>						
18	19	20	21	22	23	24
<div> <div>■ 퍼실리테이션 전문화교육</div> <div> <div>■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div> <div>■ 마산YWCA 환경보전 서포터즈단 발대식</div> </div> <div> <div>■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div> <div>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div> </div> <div>■ 숲속힐링영상캠프</div> <div> <div>■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주말가족체험</div> </div> </div>						
25	26	27	28	29	30	31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습지탐험대	바다의 날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월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 마산YWCA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세계 환경의 날	현충일	
8	9	10	11	12	13	14
	■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 마산YWCA 에너지 체험활동 및 교육		■ 환경교육원 주말환경교실	■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주말가족체험
15	16	17	18	19	20	21
	■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 환경교육원 청소년환경 아카데미	
22	23	24	25	26	27	28
	■ 마산YWCA 환경보전 캠페인					■ 경남환경교육 문화센터 주말가족체험
29	3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름덩굴 *Akebia quinata*

미나리아재비목 오름덩굴과

길이 5m이상의 덩굴식물이며 중부, 남부지방의 산속이나 산 가장자리에 서식한다.
 잎은 어린가지에서는 어긋나고 묵은 가지에서는 모여난다. 작은 잎이 5장으로
 손가락을 편 것처럼 모여 나고 8장이 붙은 오름덩굴도 있다. 꽃은 암수한그루로
 수꽃은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 자주색으로 작게 많이 달리며 암꽃은 수꽃보다
 적은 수로 달리고 크기가 수꽃보다 훨씬 크다. 암술이 6개로 달린다.
 열매는 10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길이 5~10cm정도로 작은 바나나 모양이나
 긴 키위 모양을 닮았다. 속살은 희고 검은색의 씨앗이 많이 박혀 있으며 맛이 좋다.
 열매는 익으면 갈색이 되고 저절로 벌어진다.
 오름덩굴의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씨앗은 기름을 짜서 이용한다.

- 2019년 식물세밀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강현숙 作

경상남도환경교육원

[52236]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지리산국립공원내)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교육문의 055.254.4032~6 대표전화 055.254.4011 팩스 055.254.4019

홈페이지

